

# 보상자료 통계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공용지 취득실적집계 자동화방안

서명배\*, 김남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보연구실

e-mail:smb@kict.re.kr

## Automation of Public Land Acquisition Results For Reliable Statistics

Myoung-Bae Seo\*, Nam-Gon Kim\*

\*Construction Information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 요 약

토지보상관련 법을 관장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국토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용지보상 등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국가보상에 관한 주요통계자료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실적은 보상관련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 및 부동산정책 등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9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9개 양식을 수작업으로 취합하다 보니 시간소요 및 통계오류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국가통계의 신뢰도가 저하될 소지가 있다. 이에 정확한 보상통계자료 제공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용지 취득실적 집계 자동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서론

국토해양부에서는 “국토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용지보상 등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3]. 이 보고서에는 국가보상에 관한 주요통계자료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실적은 보상관련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 및 부동산정책 등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실적을 보고하는 사업시행자가 중앙부처, 지자체 등 90여개 기관이고 자료를 수작업으로 취합하다 보니 국토해양부에서 자료를 취합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자료를 재가공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사업시행자들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련 자료를 보고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보고된 자료를 자동으로 집계해서 통계를 내 주는 기능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현황분석

#### 2.1 공공용지 취득실적 집계 현황

국토기본법 제 24조에는 매년 정기국회전까지 제출하여야 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의 내용 중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 및 토지거래 동향”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되어있다[3]. 보고주체는 토지보상과 관련된 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며 매년 초에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각종 기관들로부터 보상현황을

보고받아 집계 후 각종 통계자료를 만들고 있다[2]. 집계 대상기관으로는 국토해양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중앙부처, 경기도, 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각종 공사 등 90여개기관이 해당된다. 각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군,구에서 진행되는 보상현황을 16개 광역시도에서 취합하는 형태로 보고가 된다.

#### 2.2 현행 보고자료 양식

현재 토지정책과에서는 보고자료를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서 보고받고 있으며 보고받는 자료는 ①사업별 토지취득실적 ②기관별 토지취득실적 ③소재지별 토지취득실적 ④토지지목별 취득실적 ⑤토지이외의 보상실적 ⑥채권보상실적 ⑦잔여지 및 간접보상 실적 ⑧환매권행사 실적 ⑨대토보상 등 9개 실적이다[1]. 이러한 자료들은 엑셀형태로 보고받고 있어 자료 작성은 용이하나 자료의 특성상 사업별, 기관별, 소재지별 토지취득실적의 합이 모두 같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르다던지, 동일한 자료가 중복으로 들어간다면, 금액을 오기입하는 다양한 형태의 에러가 발생하고 있어 자료의 취합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어 막대한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 3. 공공용지 취득실적 집계 자동화 방안

#### 3.1 보고양식의 표준화

실적을 자동으로 집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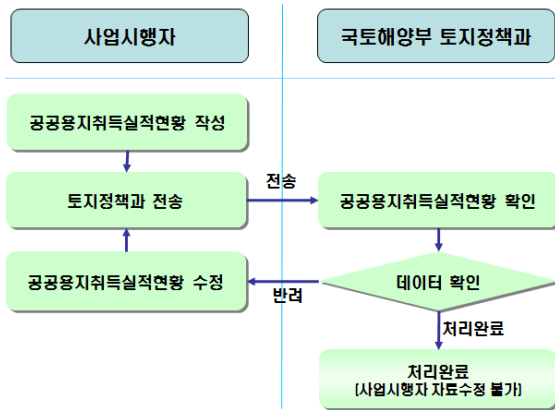
양식의 표준화가 급선무이며 표준화를 위해 보고받는 자료형식에 따라 9개를 제출했던 양식을 모두 통합하여 하나의 양식으로 만들었다. 또한, 보상공사 하나당 여러개의 데이터를 1:N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고자료의 표준템플릿을 구성하였다. <표 1>은 구분별로 정의된 데이터 항목과 이를 근간으로 출력될 수 있는 9가지 양식을 보여준다.

<표 1> 표준템플릿의 데이터 항목 및 관련양식

구분	데이터 항목	관련 양식
기본항목	사업종류, 사업시행자, 소재지	① 사업별/② 기관별/③ 소재지별/④ 토지지목별 취득실적
협의취득	진,답,과수원,대지,임야, 도로,기타 등의 보상면적 및 금액	
수용취득		
이의취득		
소송취득		
토지이외의 보상실적	지장물, 농업, 어업, 영업, 이주, 광업, 기타의 보상건수 및 금액	⑤ 토지 이외의 보상실적
채권보상	1~5년사이의 국채, 회사채보상금액	⑥ 채권보상실적
잔여지보상	토지, 토지이외의 잔여지보상금액	⑦ 잔여지 및 간접보상 실적
간접보상	토지, 토지이외의 간접보상금액	
환매권	환매 금액	⑧ 환매권 행사 실적
대토보상	대토보상면적 및 금액	⑨ 대토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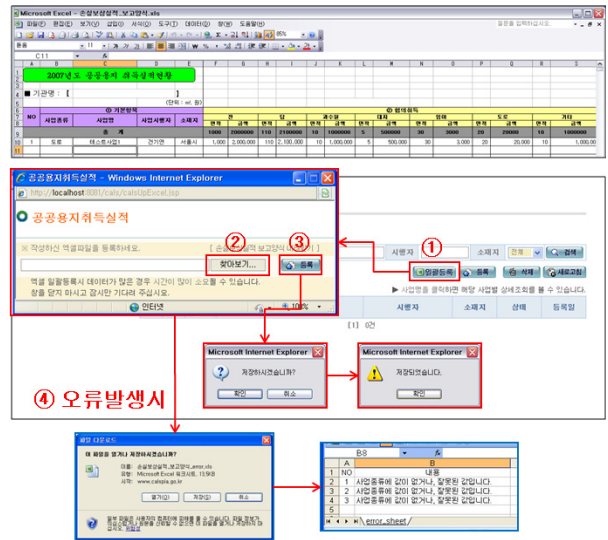
3.2 공공용지 취득실적 자동화 방안

표준화된 엑셀 템플릿을 근간으로 90여개의 사업시행자들은 보상진행현황 자료를 작성한다. 보상진행현황 자료는 한 장의 엑셀시트로 작성되어 있어서 기존처럼 9개의 양식을 일일이 작성하지 않아도 되게 구성되어 있다. 작성이 완료되면 지정된 사이트로 접속하여 엑셀업로드를 통해서 자료를 업로드 한다. 업로드 한 자료를 확인후 이상이 없을시에 국토해양부로 전송을 한다. 전송이 된 자료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토지정책과에서는 보고된 자료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엔 처리완료로 한다. 처리완료된 데이터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그림 1> 공공용지 취득실적 온라인 보고방안

만약 자료에 에러가 있을 경우에는 반료를 할수 있으며 이때 반려사유를 기재할 수 있다. 반려가 되면 사업시행자는 자료를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 후에 다시 국토해양부로 전송하다. 나머지 절차는 동일하다. 국토해양부에서는 90여개 기관의 리스트를 확인하면서 자료가 작성중인지, 처리완료가 됐는지, 반려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고된 자료를 근간으로 다양한 통계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 보상템플릿을 이용한 자료 업로드 예

5. 결론 및 기대효과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안으로 공공용지 취득실적 집계 가능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작성자료의 에러자동체크 및 양식의 간소화로 보고자료 작성에 따른 시간단축이 가능하며, 국토해양부는 공공용지 취득집계시간을 기존 3달에서 보름정도로 단축시킬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상통계자료는 보상정책 수립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때문에 자료의 오류로 인해 부정확한 통계 제공시 국가정책에 따른 국민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는 바 공공용지 취득실적 자동화로 인해 보상통계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는 보상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의 온라인 연계 자동 취합방안 등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의 일부는 국토해양부의 건설CALS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 [1] 국토해양부, 2011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 [2] 국토해양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집, 2010. 5.
- [3] 법제처, "www.law.go.kr"